

예술인 실태조사 통한 DB구축 나서

전북문화관광재단, 31일까지 예술인 등록 받아... 복지정책 수립 등 위한 기반자료로 활용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윤)은 오는 31일까지 '전북 예술인 DB구축'을 위한 예술인 등록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전라북도 예술인 대상으로 하는 첫 실태조사로, 크게 전라북도 예술인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전북 예술인 DB구축'과, DB구축 결과를 토대로 지역별·장르별 표본을 추출해 전라북도 예술인의 생활실태 및 창작여건 등을 자세히 조사하는 '예술인 실태조사'로 진행된다.

지난 11월 28일부터 진행 중인 '전북 예술인 DB구축-예술인 등록'의 등록 대상은 거주 지역 또는 활동 지역이 전북지역인 예술인이다. 등록 방법은 재단 홈페이지 배너 링크를 통해 온라인 등록, PC와 모바일 모두 가능하다. 등록된 예술인 DB는 전북 예술인의 현황 파악, 의견수렴, 예술인 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기반자료로 활용된다. 이경윤 대표이사는 "예술인 실태조사는 표본 설계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DB구축 선행조사

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전북형 복지정책 및 지원정책 수립을 위해 도내 많은 예술인들이 등록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재단은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연구 용역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듣고자 '예술인 의견수렴 공청회'를 개최했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https://www.jct.or.kr/>)와 재단 문화사업팀(063-230-7452)에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전북 TRAVEL & MICE DAY' 개최

전북문화관광재단, 여행상품 개발 투어·상담부스 운영 등 진행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윤)이 연말을 맞아 8~9일 양일간 '2022 전북 TRAVEL & MICE DAY' 행사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 행사에는 국내 대표 인바운드 여행사 30곳이 바이어로 참여할 계획이며, 14개 시군 및 유니크베뉴 그리고 도내 대표호텔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셀러로 함께한다. 먼저, 8일에는 완주 오성향옥마을과 산속등대 일원에서 행사 참여 인바운드 여행사를 대상으로 전라북도 여행상품 개발 투어를 진행했다. 이어 9일에는 전주 한옥마을 자유 투어 및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바이어와 셀러의 만남을 통한 신규 관광상품 개발 및 코스 발굴 등 협업을 이끌어내는 B2B 상담부스를 운영하며 1차 행사가 종료된다. /장은성 기자

2차 행사는 오후 5시부터 전주 그랜드힐스톤 호텔에서 트래블마트에 참여한 바이어와 셀러를 포함한 도내·외 유관기관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이 행사는 도내 우수 마이스얼라이언스 회원사 표창 및 유니크베뉴 현판 수여 그리고 환상적인 라이브 드로잉과 미디어아트 결합된 '페인터즈 히어로' 팀의 퍼포먼스 공연도 함께 진행된다. 이경윤 대표이사는 "재단이 전북 관광의 최전방 실행기관으로서 관광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전북 관광·MICE 업계 관계자들과의 소통과 협력체계를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전북콘텐츠코리아랩, 창작자 발굴 콘텐츠 스타트업 11억원 투자유치

(재)전라북도 콘텐츠융합진흥원(원장 최용석, 이하 진흥원)이 전담기관으로 운영하고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전북도가 지원하는 '2022년 전라북도콘텐츠코리아랩(이하, 전북 CKL)' 사업은 전라북도민의 상상력과 아이디어가 창작으로, 창작이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콘텐츠 창작·창업 지원 사업이다. 전북 CKL은 콘텐츠 분야 창작·창업자 발굴과 육성을 위한 '콘텐츠 창작·창업 아카데미', '콘텐츠 스타트업 육성 '콘텐츠 예비창업자 사업'과 '지원사업', '콘텐츠 스타트업 후속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콘텐츠 창업 패키지 지원사업', '창업 사무공간 및 장비 제공'으로 도내 창작자·창업자에게 맞춤형 지원했다. 해당 지원사업을 통해 창작·창업자 총 65팀을 선발 지원하여 창업 23개사, 고용 18명, 투자유치 11억원, 매출액 5.8억원 등의 성과를 달성했다. 또한 케도, 핏블리, 그림비와 함께한 '콘텐츠 창업 토크콘서트'를 진행해 전북도민과 콘텐츠 인플루언서와의 만남의 장을 마련하였고, 지난 8월 '콘텐츠 창업 캠프'에 40명이 참가하여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콘텐츠 예비창업자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했다. 패키지 지원사업을 통해 투자를 받게 된 스타라이크 채병호 대표는 "콘텐츠 스타트업 교육, 멘토링, IR 피칭까지 투자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개발 중인 더소:리듬라이브(가제) 리듬게임이 빛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 말했다. 진흥원 최용석 원장은 "콘텐츠 스타트업은 디지털 전환 시대 새로운 시장을 열고 혁신을 만들 수 있는 유망주"라며, "콘텐츠 창작·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 내 콘텐츠 스타트업을 위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전했다. 한편 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전북 CKL은 '전북 전주시 완산구 객사 4길 46, 4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북 CKL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재훈 기자

한국전통문화전당, 한국공예 장인학교 결과물 전시회 진행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은 오는 13~18일까지 6일간 3층 기획전시실에서 '2022 한국공예 장인학교 결과물 전시회'를 진행한다. '한국공예 장인학교'는 지난 2020년부터 전주를 수공예 중심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 시범 운영되는 사업으로, 지역 장인들의 전통공예 기술을 다음 세대에 전승하기 위한 수공예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이다. 이번 전시에 소개되는 작품은 장인학교를 통해 전수받은 일반인들의 작품들로 기초반 19명, 심화반 16명 등 총 35명의 수료생 작품이다. 장인학교 수료생은 주당 3시간씩, 28주간 일대일 도제식 수업을 통해 장인들에게 기술을 전수받았다. 이에 장인학교에서는 △색지 △목조각 △부

채(단선) △전통섬유(침선) △지승 등 총 5과목으로 운영됐고,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60호 색지장 김혜미자 △제58호 목조각장 김중연 △제10호 선자장(단선) 방화선 △제61호 지승장 김선에 △대한민국 산업현장교수 박순자 교수 등 5명의 장인이 각각 교육을 담당했다. 장인의 지도로 완성된 작품은 색지공예의 태극상자와 팔각소반, 목조각의 장생도와 까치호랑이, 부채의 태극선과 문양단선, 전통섬유의 치마저고리와 단령, 지승공예의 발우와 모자 등 총 25종으로 전주 공예문화의 미래를 이어나갈 공예가의 작품을 만나 볼 수 있다. 전시는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전당 누리집(www.ktcc.or.kr) 또는 전라사업팀(281-1571)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남원시는 8일부터 11일까지 서울 코엑스 C홀에서 열리는 '2022 공예트렌드페어'에 참가하여 관내 옷칠 목공예품을 홍보하는 '남원시관'을 운영한다.

남원 옷칠 목공예 가치·아름다움 알린다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공예트렌드페어' 참가 '남원시관' 운영

남원시(시장 최경식)는 8일부터 11일까지 서울 코엑스 C홀에서 열리는 '2022 공예트렌드페어'에 참가하여 관내 옷칠 목공예품을 홍보하는 '남원시관'을 운영한다. 공예트렌드페어는 매년 개최되는 국내 최대 공예 전문 박람회로, 남원시는 2018년 '남원의 목기 I-컵'을 시작으로, 2019년 '목기 II-접시', 2021년 '목기 III-볼'에 이어 올해에는 남원의 목기 IV-여행(An invitation to travel)을 주제로 남원 옷칠 목공예의 가치와 다채로운 아름다움을 널리 알릴 예정이다. 특히, 올해 '남원시관'은 예술과 일상의 경계가 사라진 현대에서 공예(工藝)의 의

미를 확장해 전시주제를 '여행'으로 정하고 옷칠모자, 옷칠 도시락, 옷칠 한 컵 테이블과 의자 등을 전시할 뿐만 아니라 옷칠 체험 부스도 마련하여 손으로 하는 예술의 가치를 향유하고자 한다. 박강용, 이건우, 김남희, 유남권 등 관내 작가들이 출품한 100여점의 작품들을 전시할 예정이다. 또한 '남원시관'에서는 남원 옷칠목공예 작품의 전시 외에도, 우수 옷칠 목공예품을 선정하고 시상하는 2023년 제26회 남원시 전국 옷칠 목공예대전을 안내하여 대전을 소개하고, 남원을 옷칠 목공예문화의 선도 도시로써 홍보한다. /남원=김기두 기자

국립무형유산원, 무형유산 조사연구 보고서 3종 발간

국립무형유산원(원장 이경훈)은 공동체가 전승하고 있는 무형유산을 발굴하고 그 가치를 심층적으로 연구한 '무형유산 조사연구' 보고서 3종을 발간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번에 발간하는 '물때지식', '해초류 채취와 전통어촌공동체', '심마니와 약초꾼의 습속'은 그동안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추진한 한국무형유산종합조사 심화연구의 농경·어로 관련 전통지식 분야 연구결과를 책자로 엮은 것이다. 각 주제 관련 자연환경과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 전통지식, 관련 공동체의 형성과정 및 지역별 전승유형, 그 문화적 관습과 가치 등을 무형유산적 관점에서 분석했다.

특히, 이 보고서는 2017년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농경과 어로 분야에서 수집한 현장자료를 심층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생업 관련 전통 지식과 공동체 문화 또한 무형유산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데 의미가 있다. 국립무형유산원 관계자는 "이번 보고서에 이어 농경어로 관련 전통지식, 민간신앙 관련 사회적 의식, 전통적 놀이 등에 대한 연구결과 보고서를 지속적으로 발간해 그간 무형유산 분야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공동체 전승 무형유산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싶다"고 전했다. 한편 올해 발간하는 3종의 '무형유산 조사연구' 보고서는 국립무형유산원 누리집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장은성 기자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주매일이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 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일반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자료: 질병관리청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 하지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